

사설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공화국은 무궁토록 빛을 뿌릴 것이다

공화국은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강대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민란을 맞받아 뚝고나가며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있는 공화국인민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공화국창건 일흔다섯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것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자주독립국가, 인민의 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는 특기할 대사변이었으며 위대한 강국건설의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력사의 이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장 75년간 공화국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며 주체의 강국,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라 반방에 빛을 뿌리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완벽한 국가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의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해방후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인민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전진하는 인민의 국가를 건설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 인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리념으로 내세우시고 철저히 구현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속에 공화국은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적본보기를 창조하며 영웅조선, 천리마조선으로 위용떨치고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로 세계지도우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심단결을 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으며 혁명앞에 가장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극악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존,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전대미문의 힘로역경을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속에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은 백방으로 다져지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타올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만년토레가 마련되였다.

참으로 비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력사상 처음 보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은 강성부흥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어 그 존엄과 지위가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라 세계민방에 위용떨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철석의 의지

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 강국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며 공화국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부흥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민헌신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강령들을 제시하시고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로 자존과 변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안아오시였으며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전성기를 펼쳐시였다.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위함이라면 위험천만한 화신길에도 주저없이 나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애국헌신의 로고에 의해 공화국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초강국으로, 사상초유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굴함을 모르고 인민의 사회주의리념을 일떠세우는 기적의 나라로 세인의 끝없는 찬탄을 모으고있다.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서 누리에 떨쳐지고있다.

공화국은 자주적대가 강하고 자기식의 발전궤도를 따라 용진하는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이다. 자주는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룬다.

장구한 기간 제국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의 공격의 화살이 집중된 속에서도 공화국이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국가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해온것은 기적이 아닐수 없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기가 눌리워 원칙을 버리고 굴종의 길로 나아가고있을 때에도 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와 관련하여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몰랐다. 자주의 혁명

로선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한 여기에 공화국이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사소한 곡절과 탈선도 없이 승승장구해온 근본비결이 있다.

해마다 세계정치무대에서 일어난 중대사변들을 꼽을 때마다 공화국이 국제정치에 초점으로 되고있는것은 제국주의의 폭제와 전횡이 만무하는 현 세계에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정한 길로 끄떡없이 정정당당히 나아가고있기때문이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공화국이 세계정치정세흐름을 주도하며 자주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 세계에서 민족자주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령강들의 희생물로 되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속명으로 받아들이어야 하는것이 맹혹한 현시대의 실상이다.

공화국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킬 힘을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위대한 국가이다.

오늘 공화국의 전략적립, 전쟁역적력은 지난 년대와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비상히 강화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에 련속적으로 등장한 주체병기들이 보여 주듯이 공화국의 국가방위력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최강의 높이에 올라섰다.

세계언론들과 군사가들도 100% 국산화된 공화국의 첨단무기체계를 개발속도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라지고있다고 한결같이 평하고 있다.

특히 뜻깊은 올해의 2월과 7월에 련이어 진행된 열병식은 그 발전속도와 질적, 량적측면에서 한해한해가 다르게 급속급진하게 장성하고있는 공화국무력의 선진성과 현대성을 세계에 뚜렷이 각인

시켰다.

공화국은 오늘도 래일도 자기의 창조력을 더욱 절대적인것으로, 더욱더 불가역적인것으로 다져나갈것이며 가장 철예하고 장기적인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새로운 전승사를 써나갈것이다.

공화국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을 뚜렷이 과시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빛을 뿌리고 있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장 철저히 보장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세상이다.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누리고있으며 국가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국가의 모든 정책에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되고 법제와 집행이 철두철미 인민을 지키기 위한것으로 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공화국은 인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굳건히 지키고 꽃피워주는 인민의 참다운 보금자리이다.

인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떠맡아 안고 천신만고를 다하여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공화국의 진보습은 이인위천, 위민헌신의 리념에 집약적으로 담겨져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에 대처하여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생활향상을 최우선사로 내세우고 큰 물과 태풍피해를 입은 재해지역 인민들의 불행을 가시기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것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이다.

지금과 같은 때에 인민이 안겨줄 문명의 별천지들과 따뜻한 보금자리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아이들에게 은정어린 젖제품과 새 교복, 새 학용품이 차려지고 있는것은 결코 조건이 유리하고

모든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일편단심 자기 령도자만을 믿고 만년시련을 헤쳐온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 행복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함에 국가의 모든 활동을 지향시켜나가는 공화국이 아니고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것이다.

참다운 인민의 나라는 인민들의 오늘과 생활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맡아안고 꽃피워주는 국가이다.

공화국은 경제를 건설하여도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자원과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고 무엇을 하나 일떠세워도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일떠세워왔다.

어렵고 방대한 력사적과제들을 수행하면서도 언제나 먼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일관하게 실시하여온것이 아마로 공화국의 부강조국건설투쟁의 중요한 특징이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하는 진도양양한 국가이다.

공화국인민의 비상한 열의와 창조적힘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동력으로 되고있으며 가사보다 국사를 앞세우고 나라와 어려움을 함께 하며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드는 자각적열성과 헌신적투쟁은 공화국의 승리적전진의 근본담보로 되고있다.

그 어디를 가보아도 서로 위해주고 감싸안아주는 미덕과 미풍이 차넘치고 협조와 단결의 힘에 의하여 집단적헌신의 불길, 긍정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을 뚜렷이 과시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더

욱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리러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실히 받들어어나가는 여기에 공화국의 부강번영과 양양한 미래가 있다.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강건해주시고 온 세상에 찬란히 빛을 뿌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 절세위인들의 강국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공화국을 김일성조선, 김정일조선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온 겨레의 운명이고 미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곧 조국이며 그이가 계시어 공화국의 부강번영도, 인민들의 참된 삶과 행복도 있다는 드림없는 신념을 간직하고 그의 령도를 충실히 받들어어나가야 한다.

누구나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가장 존엄있는 민족, 위대한 강국의 한 성원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어머니조국을 위해 애국의 땅방울을 바쳐야 한다.

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조선민족의 피가 흐르는 민족의 일원이려면 공화국의 통성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절세위인들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 승리의 한길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이고 운명이며 미래인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